1Q 한국 GDP: 수출과 내수의 균형

Analyst 김현성 | 경제
02-3779-3517
hs.kim@sangsanginib.com

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채널

대내외 경기 격차 축소에 따른 성장 호조

4/25 발표된 2024년 1분기 한국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1.3%, 전년대비 3.4%로 집계되었다. 예상치를 각각 0.7%p, 0.9%p 상회한 가운데 전기대비 성장률의 경우 4Q 0.6%의 2배를 웃도는 서프라이즈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경기가 성장을 견인 중인 동시에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대폭 개선(-0.4%p→0.7%p)되면서 대내외 경기 격차가 축소될 수 있었고, 금번 서프라이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민간소비(0.2%→0.8%), 건설투자(-4.5%→2.7%)의 4Q 대비 회복은 그간 알려진 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양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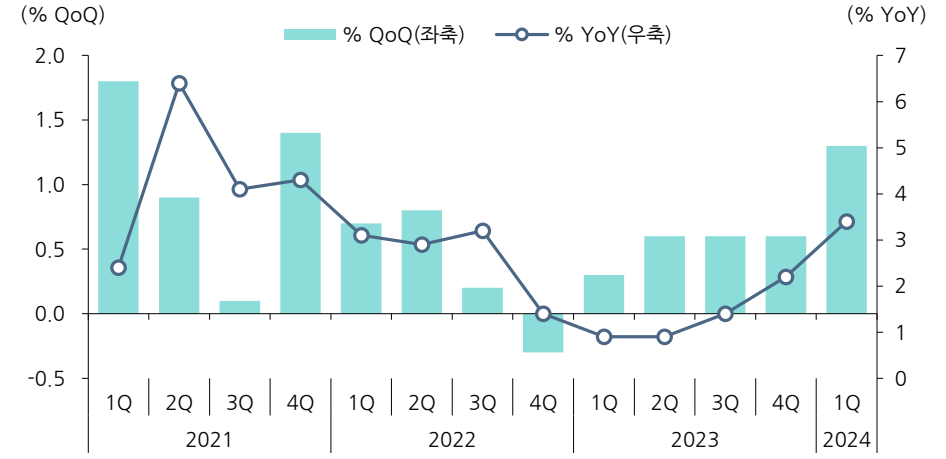
내수 반등, 일단 긍정적이지만 지켜볼 필요

수출은 기저효과 소진의 영향으로 전기대비 증가율이 축소(3.5%→0.9%)되었다. 다만 미국 IRA 등을 비롯한 리쇼어링, 중국 첨단산업 육성 정책은 제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우호적 수출 여건을 조성 중이다. DRAM 및 NAND를 주력으로 하는 기존 생산 능력을 수익성이 높은 HBM용으로 일부 전환하면서 반도체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수입은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오히려 위축(1.4%→-0.7%)되었는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반등에 안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1Q 내수 반등이 양호한 기상 여건, 신규 스마트폰 출시, 대단지 마무리 공사 등과 같은 특수성에 기인한 측면에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낙관론으로 일관하기에는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올해 성장률 전망, 2.0% → 2.2%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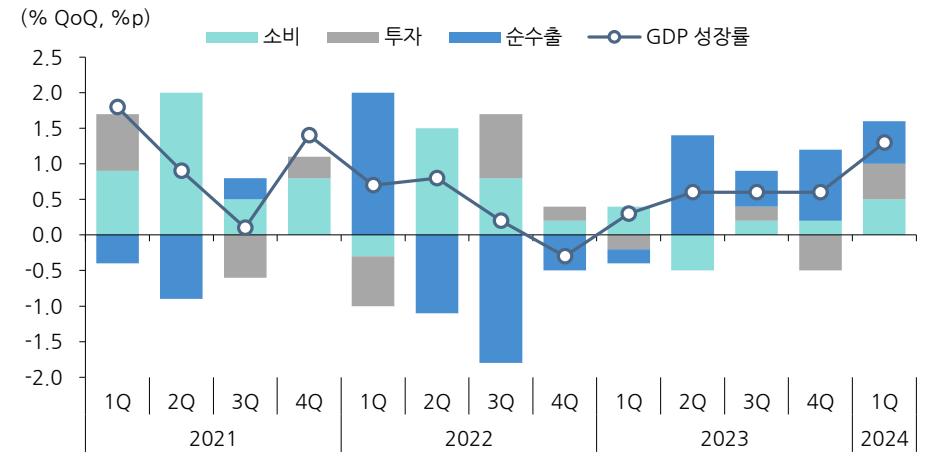
2024년 한국 GDP 성장률에 대한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전년대비 2.2%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IMF는 4월 WEO에서 1월 전망과 동일한 2.3%를 제시한 바 있다. 당사는 예상보다 견조한 1Q 성장률을 고려하여 지난해 10월 연간 전망에서 제시한 전망치 2.0%를 2.2%로 상향 조정한다. 성장 경로는 대체로 상고하저의 흐름이 예상된다. 이는 AI 및 기업용 대비 PC와 같은 범용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중국의 공급 과잉이 염가 수출로 파급되며 한국 수출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 및 고환율에 의한 구매력 하락, 부동산 PF에 따른 2금융권 연체율 악화 등의 리스크 또한 잠재한다. 성장률 상향 조정이 소폭에 그치는 이유다.

그림 1. 한국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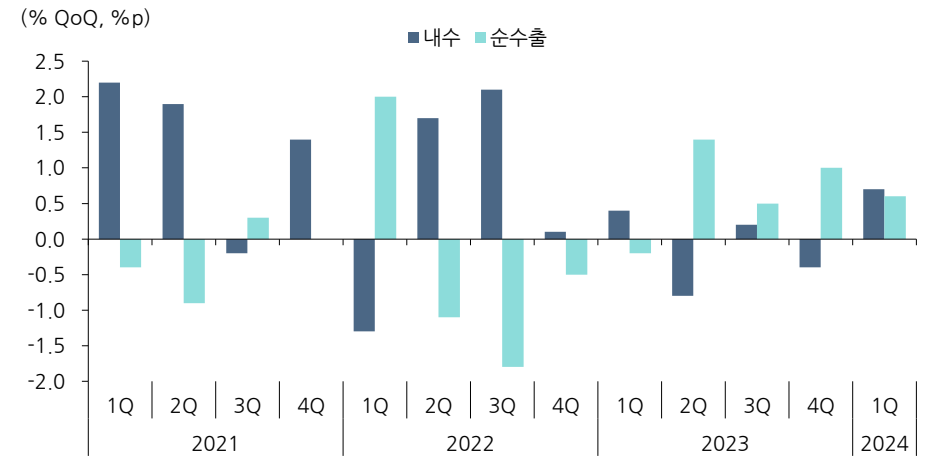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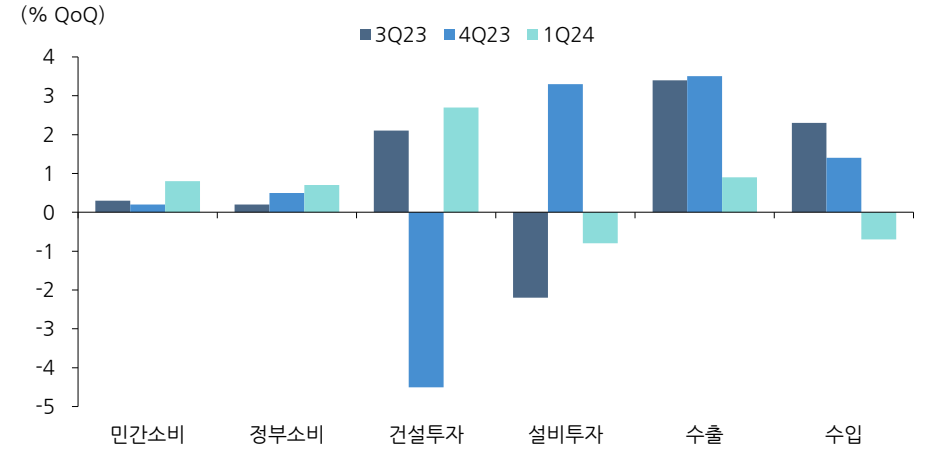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대내외 성장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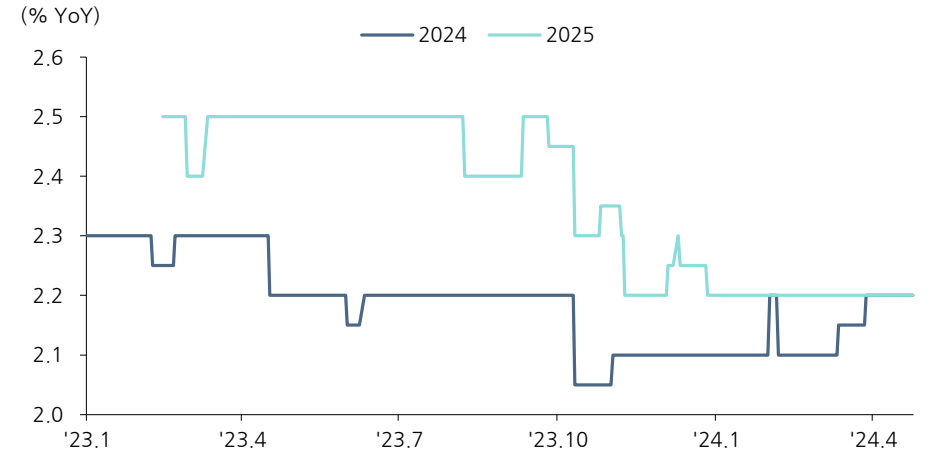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지출항목별 증감율



자료: 한국은행,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한국 GDP 성장률 전망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성)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